학교가 된 감옥

세 차례 신문이 끝나자 창수는 판결을 기다리며 한가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리서에 다니는 한 젊은 관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창수와 같은 애국심에 불타는 의기 남아와 사귀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창수와 그 관리는 많은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그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여러 문명국에 대한 얘기를 해서 창수를 놀라게 했습니다. 창수는 지금까지는 서양이라면 원숭이 비슷한 오랑캐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서양에도 문화를 가진 문명국이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젊은 관리는 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옛사상, 옛지식만 지키고 외국을 무조건 배척한다면 나라를 구하지 못하네. 외국 문물이며 과학을 널리 연구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여 우리 힘을 길러야 하네. 창수와 같은 의기남아가 마땅히 신학문을 공부해 나라와 백성을 새롭게 함으로써 쓰러져 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가면서 그는 중국에서 발간된 여러 신학문에 관계되는 책과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신학문 책들을 넣어 주었습니다.

창수는 이 책들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책들을 읽으면서 그는 서양과 세계의 사정을 알게 되었으며, 자기 자신과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외국이라면 무조건 배척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 세상에 사람이 사는 바른 길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국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창수는 신학문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모두 옳지만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백성이 저마다 배우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야만 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살아갈 길을 찾게 되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백성이 배워 깨어야만 나라가 부강해진다. 그러니 여기 있는 죄수들부터 가르치기로 하자. 이렇게 무식해 놓으니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떠한 지도 모르고,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잖는가!'

그 날부터 창수는 동료 죄수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죄수들은 자기네 같은 상것들이 글을 배워 무엇에 쓰겠느냐며 시큰둥해 했습니다. 그래도, 배우는 체라도 해야 창수로부터 맛있는 걸 얻어먹을 수 있으니까 마지못해 배우는 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차차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감옥 이곳저곳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수가 죄수들에게 글을 가르쳐 감옥이 마치 학교처럼 되었다는 소문이 온 인천에 퍼졌습니다. 마침 그때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이 나오고 있었는데, 이 신문에도 창수에 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창수는 죄수들을 위해서 대서소 일도 벌였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잡혀 온 죄수들의 말을 듣고, 죄가 없음을 관청에 호소하는 소장을 대신 써 주곤 했습니다.

그가 써 준 소장으로 풀려 나가는 죄수가 많아지자 그에게 소장을 써 달라는 죄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번은 한 죄수로부터 감옥을 지키는 관리인 옥리에게 돈을 맡겼다는 얘기를 듣고 호소문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 옥리는 즉각 파면 당했습니다.

이후로는 인천 감옥에서는 옥리가 죄수로부터 돈을 빼앗거나 죄수를 학대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옥리들은 모두 창수를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그 해 7월도 다 가서였습니다. 어느 날 '황성신문'에 보니, 8월 26일 김창수를 교수형에 처한다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를 안 죄수들은 마치 자기들 자신이 교수형을 당하게 되기라도 한 것처럼 슬퍼했고, 옥리들도 줄을 이어 찾아와 이럴 수 있느냐고 분해했습니다. 인천 시내의 관리와 유지들도 마지막 인사를 위해 줄을 이어 그를 찾아왔습니다.

"김 선생, 살아 나와서 서로 대하게 될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요?"

그러나, 정작 창수는 태연했습니다.

"너무 슬퍼들 하지 마시오. 나라의 큰 원수를 갚지 못한 것은 원통한 일이지만,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는 내 뜻을 세상에 알렸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니겠소."

8월 26일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은 후, 조용히 앉아 아버지가 넣어준 '대학(大學)'을 읽어 나갔습니다.

창수는 점심도 잘 먹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언제나 사형집행이 오후에 있었습니다. 창수는 침착하게 기다리며 '대학'을 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돼도 그를 불러내려는 기척이 없습니다. 다시 저녁때가 되어, 그는 저녁밥도 잘 먹었습니다.

오후 8시쯤 되어서였습니다. 밖이 떠들썩하더니 옥문 열리는 소리가 납니다.

'이제 때가 왔구나!'

창수는 조용히 앉아 올 것을 기다리고, 같은 감방의 죄수들은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김창수, 어느 방이오?"

"이 방이오."

창수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당신, 이제 살았소! 지금 막 황제 폐하께서 김창수에 대한 사형집행을 중지하라는 칙명을 내리셨소. 우린 모두 오늘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어찌 우리 손으로 김창수를 죽이느냐고 끙끙 앓던 참이오. 어이구, 이젠 살았소!"

관헌은 마치 자기가 사형을 면하기라도 한 듯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은 이내 잔치판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수들은 차꼬를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일어나서 어절씨구 춤을 추었습니다. 또 죄수들은 창수가 그토록 태연했던 것은 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수의 사형이 중지되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번에는 축하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찌나 면회 오는 사람이 많든지 그는 아예 옥문 안에 자리를 깔고 앉아 며칠 동안이나 축하인사를 받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부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주시오!"

이런 축하의 말을 들으면서 창수는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다고 거듭 다짐하곤 했습니다.